

스토리텔링 웹툰 창작 도움 자료 : 백제의 악기, ‘횡적’

(본 자료는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백제 악기 ‘횡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수로를 품은 백제 사비의 행정 중심지

백제 사비시기의 왕궁지인 부여 관북리유적 16차 발굴조사에서 538년 사비천도 직후부터 위덕왕 때(威德王代, 554~598)에 사용된 목간(木簡) 329점과 횡적(橫笛, 가로피리) 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목간과 횡적이 발견된 지점은 6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대단위 성토대지를 기준으로, 1단계 문화층과 2~3단계 문화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수로는 사비백제 초기에 운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수로의 동편에서 굴립주 건물지(주춧돌을 놓지 않고 땅을 파 기둥을 세워 만든 건물)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건물이 목간을 제작하고 관리하던 관청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도면2].

2~3단계에 조성된 건물 터에서는 태극문 수막새와 연화문 벽돌[도면4,5]이 출토되었는데, 주춧돌과 기와 지붕을 갖춘 왕궁 내 핵심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단계 1호 건물지는 유적 내 위치와 규모, 구조로 보아 왕과 신하가 국정을 논의하던 정전(正殿) 전면의 조당(朝堂) 중 서측 건물로 추정됩니다[도면3]. 오늘날의 정부청사와 같은 위상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건물은, 일본 나니와노미야[難波宮]의 초도인[朝堂院]과 구조가 유사하여 당시 백제와 왜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도면10].

기와 아래에서 발견된 긴박한 현장: 불에 탄 말 뼈와 가죽 갑옷

조당의 관청 기능은 대규모 화재로 멈추게 됩니다. 불에 탄 기와가 흐트러진 채 다량으로 확인된 것 모습은 건물이 자연적인 노후를 거쳐 폐기된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불타 무너져 내렸음을 증명해 줍니다. 기와를 걷어내자 확인된 불에 탄 말 뼈와 옷칠된 가죽갑옷은 매우 이례적인 발견입니다[도면6,7]. 이는 주요 관청건물의 폐기를 넘어서, 백제가 패망하던 660년, 그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결정적 고고학적 흔적입니다.

백제 악기, 횡적은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백제 왕궁의 핵심시설인 조당(朝堂) 건물로 파악되는 1호 건물지에서 동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평면 직사각형의 구덩이 유구(19호 수혈)가 확인되었습니다[도면5]. 구덩이 유구는 가로 2m, 세로 1m, 깊이 2m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백제 토기와 기와 조각이 다량의 유기물에 집적된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도면13].

대나무 재질의 악기인 횡적은 구덩이 바닥에서 유기물과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몸통 부분은 부러져 전체의 30%가 유실된 상태였지만, 악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개의 구멍이 일렬로 뚫려있었습니다. 부러진 끝 부분에는 인위적인 파손 흔적이 있으며, 오랜 시간 땅속에 매몰되어 납작하게 눌린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도면8].

구덩이 유구는 6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성토대지를 굴착하여 만들었는데, 내부 출토유물 연대와 횡적 자체의 연대측정¹⁾ 결과 조당 건물이 운영되던 시기의 유구로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덩이 내부 유기물을 분석한 결과 도꼬마리의 열매인 창이자(蒼耳子)를 비롯하여, 벼 왕겨, 메밀, 벼과의 초본 화분과 함께 편충, 회충, 간흡충²⁾과 같은 인체 기생충란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도면14]. 또한 오늘날 화장실 휴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뒤처리개로 추정되는 나무 막대기도 출토되었는데[도면15] 이 구덩이가 조당에 부속된 화장실일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1)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568년부터 642년(신뢰수준 95.45%)의 연대값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백제 횡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이자, 삼국시대의 유일한 실물 관악기가 발견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2) 오늘날 부여군에서 주로 먹는 우여회와 같이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였을 때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고, 간흡충란은 간흡충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배출됩니다.

백제 악기, 횡적은 어떤 악기일까요?

출토된 횡적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지공(指孔, 손가락으로 음을 조절하는 구멍)이 확인되었고, X-Ray 분석 결과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는 취공(吹孔)이 있는, 악기의 한쪽 끝이 막힌 구조임이 판명되었습니다[도면11]. 이는 백제 금동대향로에 표현된 세로로 부는 관악기가 아닌 가로로 불어 연주하는 횡적, 즉 가로피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도면17]. 크기와 형태로 보아 오늘날의 전통 악기인 소금과 유사합니다. 다만 소금에 비해 취공이 작고, 취공과 첫 번째 지공 간의 거리가 짧습니다.

참고영상

	<p>“사비백제의 악기와 문서”부여 관북리 유적 출토 목간과 악기 조사성과 공개회</p> <p>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부여군은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의 성과를 지난 2026년 2월 5일에 공개하였습니다. 관북리유적의 조사 현황과 백제의 악기인 횡적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백제 횡적의 연주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p>
---	---